

노회찬의 장미꽃으로 “미소를 되찾아 주세요”

‘제 112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1995년 베이징 UN 세계여성회의(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을 맞아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 차별, 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의원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각계각층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보내고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 정당들이 ‘남녀동수 공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활약해왔지만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세계 평균 24%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99년 프랑스는 ‘남녀 동수공천제’를 헌법에 명시한 후 여성의원 비율이 27%에서 47%로 급증했고, 2018년 일본에서는 후보자 남녀 균등법이 통과한 후 첫 번째 선거에서 여성지방의원의 수가 207명에서 2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선 제 정당들이 ‘남녀 동수공천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임금·고용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성별임금 격차 OECD 1위 국가”입니다. 남성 평균임금의 64%에 불과한 여성의 평균임금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직장 내에서 정규직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막혀 있고, 임신출산육아 휴직은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임금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전환된 이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은 그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이 담당해온 일이라는 이유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청소·돌봄·보건관련 여성노동자들이 정당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혁되어,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소년 정치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1908년,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외쳤던 ‘참정권 요구’의 정신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성·이

주민·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정치의 다양성과 정치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출발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위헌소송이나 선거법개정안 발의 등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성평등 문화와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회찬재단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의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통해 지체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시대 변화에 맞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낙태죄 폐지 입법화 등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매년 3월 8일이 성평등 문화를 특별히 나누는 날이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노회찬 의원이 염원했던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3월 5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성평등메시지위원회 드림

(고미경, 구인회, 권김현영, 김수정, 백미순, 오한숙희, 이유명호, 이기호, 전홍기혜)